<현대 정치철학의 고전들> 2008/8/20 김 항

조르조 아감벤『호모 사케르』읽기

· 조르조 아감벤의 지성사적 맥락
- 언어와 존재 : 헤겔-하이데거-데리다
- 역사, 법, 정치신학 : 벤야민-슈미트
- 전체주의, 생명정치 : 아렌트-푸코

·『호모 사케르』
- 1970년대 후반의 푸코 : 통치성과 국가이성(raison d'état)
- 아렌트의 전체주의 : 행위의 말살과 수용소
- 주권의 역설, 예외상태, 포함하는 배제 : 칼 슈미트의『정치신학』
- 법권리(Recht)의 효력 : 숄렘의 카프카 해석과 칸트
- 예외가 규칙이 되는 상태 : 벤야민과 벌거벗은 삶(blosse Leben)
- 호모 사케르 : 주체화 불가능의 시대, 혹은 유기된 채로 존재(Sein)를 개시하는 잠재성

<참고자료>

활동적 삶에서 벌거벗은 생명으로 - 조르조 아감벤『호모 사케르』

그 어떠한 필요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래서 그 어떠한 강제나 폭력도 행사될 수 없는, 그런 '공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행위, 그것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활동적 삶(vita activa)'이라고 불렀다. 이 삶은 매우 드물고도 소중해서 좀처럼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이들이 필요로부터 해방되어 강제나 폭력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가능했다면 그토록 수많은 생존을 위한 투쟁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마땅했을 터이니 말이다. 그래서 애초에 아렌트는 '분할'을 말해야만 했다. 때에 따라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적 공간'은 저 활동적 삶의 서식처인 공적 공간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정치적 생명(bios politikos)'이 물리적인 공간 분할을 통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생명은 먹고 자는 일로 번민에 휩싸이거나 하지 않고, 말과 행위를 통해 더불어 살아 나가기 위한 세계를 창출해낸다. 활동적 삶이란 이렇듯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행위의 양태에 다름 아니었다.
물론 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귀족적인 사유에 고개를 가로젓는 일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까닭, 즉 먹고 자는 일 외에 더불어 살기 위한 질서를 스스로의 손으로 창출한다는 인간 고유의 행위가 정치의 본질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렌트가 일종의 타락사로 서술하고 있는 서구 정치사는 이 활동적 삶이 점점 먹고 자는 공간의 팽창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지 깨달을 겨를도 없는 근대인들에게 활동적 삶이란 이 역설이 감지되지 못하는 딱 그만큼 낯선 개념일 터이다. 그도 그럴 것이 먹고 자는 문제, 즉 생명의 유지라는 문제가 정치적 사안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닌 상황 속에서 활동적 삶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서식처를 찾아낼 수 없다. 경제(동물적 생명 유지)와 안보(외적으로부터의 생명 유지)가 국가로 대변되는 근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래서 아렌트의 활동적 삶이 제 아무리 귀족적이고 속된 말로 재수 없어 보일지라도, 인간 고유의 자유로운 행위로 대표되는 정치적 삶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대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비판점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먹고 자는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이 그런 삶과 다른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 정치적 구성원리였던 것이다. 이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스스로를 사념해온 근대의 인간에게 부정할 수 없는 공리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 정치란 활동적 삶이 아니라, 그것이 공적 공간 저편으로 보내야만 하는 동물적인 단순한 생명(blossen Leben, mere life)에 근거해 있다면 사태는 어떻게 될까? 조르조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를 통해 제공해주는 사유의 단초, 아니 사유의 혁명적인 전환점은 바로 이 물음에 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은 아렌트의 전체주의론 안에서, 또한 푸코의 70년대 중반 이후의 여러 작업들 안에서 예고된 것이었다. 아감벤은 이들이 제시한 가능성, 하지만 결코 이들이 밀고 갈 수 없었던 가능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서구 정치(사상)의 심연에 흐르고 있던, 그러나 그 누구도 명확한 비젼 아래서 엮어낼 수 없었던 하나의 계보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법-권리(Recht, droit)와 생명정치(bio-politique)의 근원적 위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호모 사케르』에서는 이 계보학이 여러 가지 영역을 횡단하며 구성된다. 그리스 고전의 문헌학적 고찰, 로마법 내의 기이한 존재규정으로 책의 제목이 된 호모 사케르, 홉스-슈미트-벤야민의 주권론,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현대의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아감벤의 계보학은 서구 정치(사상)사를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다닌다. 하지만 어찌 보면 매우 광범위해서 난삽할 수도 있는 이들 단편들로부터 추출한 씨줄은 생명정치와 주권이라는 날줄과 얽히며 하나의 조직물을 짜내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이 조직물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은 아렌트의 타락사도, 푸코의 미시권력의 그물망도 아니다. 그것은 법-권리의 주체로 정치적 삶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인간이 그 어떤 옷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다는, 그로테스크한 모자이크이다.
홉스의 주권론을 통해 보자면 사태는 이렇다. 우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망, 즉 자연권은 스스로를 죽이는 화살이 되어 개인에게 되돌아온다. 만인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은 고스란히 만인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일들을 그만두는 일이 필요하다. 즉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유했던 일체의 장치들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생명(nuda vita)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벌거벗은 개인들이 내려놓은 일체의 권리를 주권자(sovereign)가 가져간다. 주권의 탄생은 이렇듯 벌거벗은 생명들로부터 비롯되는 사태이다. 이 때 개개인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은 개개인을 법-권리를 가진 자들로 호명한다. 하지만 법-권리의 주체로 호명되기 이전에 개개인은 우선 벌거벗은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아감벤이 말하는 법-권리-주권과 생명정치의 근원적 위상학이다. 벌거벗은 생명은 국가 바깥으로 배제되기 위해서, 주권 안에 포섭되어야 한다. 이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복잡한 위상학에 대한 사유 없이 20세기의 전쟁과 수용소는 사유될 수 없으며, 거꾸로 말하면 전쟁과 수용소는 이 복잡한 위상학, 서구 정치(사상)의 근원을 형성해온 계보를 보여주는 장인 셈이다.

따라서 아감벤이 '예외가 규칙이 된 세계'라는 벤야민의 말을 인용하는 까닭은 단순히 기이한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서구 정치(사상)이 자유와 권리로 대변되는 정상적인 상태로 꿈꿔온 공적 공간 한 가운데에 그저 먹고 자는 동물이 턱하니 서있다는 사실을, 즉 이 기이한 세계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며 정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법 없는 국가의 바깥(예외상태)이 국가의 안쪽(규칙)을 존립시키기 위해 배제되면서 포섭되는 세계, 이것이야말로 서구 정치(사상)의 심연 속에서 아감벤이 힘겹게 끌어올린 사유의 지평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을 이렇듯 벌거벗은 생명들로 만듦으로써 법-권리의 주체로 구성할 수 있다는 사유가 열어놓은 지평은 그리 반갑지는 않은 세계임이 틀림없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랴, 애초에 희망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해방이란 결국에는 스스로가 벌거벗은 생명인 채로 이 끔찍한 정치적 공간 속에 서 있다는 냉엄한 인식 자체에 다름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감벤이 열어놓은 사유에, 혹은 호모 사케르라는 매혹적인 말에 일비일희하는 일은 멈추어야 하리라. 호모 사케르는 지금과 다른 세계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세계 바깥이 결국 이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독하고 냉철한 리얼리즘을 견뎌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아마도 『호모 사케르』는 해방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인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생명정치와 주권국가> 제2회

· 발터 벤야민과 칼 슈미트

- 망명자 벤야민과 나치 공법학자 슈미트
- 바이마르와 독일적인 것, 부르주아 비판
- 벤야민이 슈미트에게 보낸 1930년 12월9일자 편지

  <이 책(독일 비극 Trauerspiel 의 기원)에서 17세기 주권 이론에 대한 기술이 얼마나 귀하에게 빚지고 있는지 즉시 눈치 채셨을 거라 믿습니다. 또 저의 예술철학 연구방법을 귀하의 국가철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확증하기 위해, 귀하의 (정치신학) 이후의 저작, 특히 <독재 Diktatur>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 만약 졸저를 읽어주신 후 제 마음을 이해주신다면 이 책을 보내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 지적 스캔들인가, 새로운 지성사의 지평인가

· 주권, 폭력, 정치신학

- 왜 주권인가 : 의회비판, 정치의 복원
-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 : 키에르케고르의 결정(결단)
- 인륜(Sittlichkeit)을 넘어서
- 신칸트학파 비판

· 아감벤과 예외상태

- 호모사케르 II『예외상태』
- 근대 법학의 아포리아 : 정치적 사유의 공백
- 예외가 규칙이 된 세계
- 슈미트와 벤야민의 관계 설정

· 부르주아 비판의 길

- 파리, 파사쥬, 상품론
- 구체적 질서 : Raum-Rome
- 정치신학의 끝에서